

순창군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박차

14일까지 5곳 선정 5억씩 지원 생활기반 확충·소득증대 등 사업 2013년부터 15개 마을 사업 완료

순창군이 마을 역량이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순창군은 '2022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돼 왔다. 현재 순창지역 15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 생활기반이 확충되고 경관이 개선됐다.

특히 이 사업은 ▲기초생활기반 확충(노후 마을 회관 리모델링 등) ▲지역소득 증대(가공시설 등) ▲경관개선(담장 개·보수, 마을 안길 정비 등) ▲주민 역량강화(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총 5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은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 및 특성을 기반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공모하는 상향식 방식이 추진된다. 최종 선정 마을에는 사업기간 3년에 걸쳐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참여 희망 마을은 농촌현장포럼과 생생마을 기초단체, 마을리더 교육 등 지역개발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다만 누구나 살고 싶

은 농촌 마을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임을 읍·면장이 확인·추천할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사업 선정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마을 회의록 등을 첨부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해당 읍·면에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신청서가 제출되면, 자격요건과 서면점검 등 적합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마을 역량이 맞는 단계별 지원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겠다"며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편의 증진사업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2040년 정읍시 도시계획, 시민들이 세운다

공개모집 60명 시민참여단 구성

정읍시가 시민과 지역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2040년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40년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시는 최근 행정 위주의 일방적 수립·진행했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수립 전에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6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사진> 시민참여단은 도시의 미래상을 확립하고 장기

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도시·주택과 문화관광·경제, 교육·복지, 교통·환경안전 등 4개 분과로 나눠진 시민참여단은 정읍시의 미래상과 비전 설정, 주요 이슈 도출, 권역별 지역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발한 주도 참여로 정읍시의 장점과 특성을 살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건설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 장애인센터·소나무협동조합 고창 문화력 증진 업무협약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치유문화도시 고창의 문화력 증진을 위해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고인돌과소나무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창군 제공>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가 치유문화도시 고창의 문화력 증진을 위해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천옥희), 고인돌과소나무협동조합(이사장 강중환)과 손을 맞잡았다.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와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치유문화도시 기반 조성으로 장애인의 일상 속 문화적 삶 향상 ▲장애인문화복지 등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 확대 ▲장애인들의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장애인들의 문화력 증진과 문화복지 실현 등 4개 항목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고인돌과소나무협동조합과는 ▲치유문화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상호 공동협력 및 교류 확대 ▲목조문화자산 관련 조사 및 연구활동 ▲고창군 전문문화직원의 계승 발전을 위한 정책적 협력과 지역사회거버넌스 활성화 ▲시민문화력 증진과 문화복지 실현 등 4개의 항목에 대해 협력하고 동

시에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함께 뛰기로 서약했다. 고인돌과소나무협동조합은 올해 9월에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으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고창지역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 일자리프로그램인 소나무정충공방 출신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고창=김정호 기자 khj@kwangju.co.kr

설정한 고창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치유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문화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치유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은퇴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고창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정호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17일까지 한복문화주간 행사

사진전·한복 리폼 이벤트

익산시는 지역 특색을 담은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오는 1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백(古百) 한복·백제를 입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최로 열리는 '2021 한복문화주간'은 한복을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개된다. 지난 9월 참여형 사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한복 사진 공모전을 통해 익산에서 촬영한 다양한 한복 관련 사진 작품이 익산역 서부통로에서 16일까지 전시한다. 또 원광대학교 패션산업디자인학과와 연계해

장롱 속 한복 고쳐 입기를 주제로 백제 문양을 활용한 20여벌의 한복 리폼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일부 작품은 익산역 서부통로에서 16일까지 전시된다. 오는 16일과 17일 미륵사지에서는 지역 문화유산과 융합된 한복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 콘서트, 백제 30대 무왕행차 재현 퍼레이드 등이 펼쳐진다. 익산시 관계자는 "일상에서 만나는 한복을 주제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 및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지역의 특별한 한복문화주간 운영을 통해 백제왕도 익산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더욱더 높여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 공모 선정...사업비 10억원 확보

시설 신축·생산 기자재 지원

남원시가 곤충 관련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2022년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거점 기관과 협력 농가에 곤충산업 관련 시설 신축 및 기자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는 지난 9월 전국 지자체 사업 신청 후 서류심사(1차),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2차) 등으로 진행됐다. 남원시 포함 전국 5개소가 선정됐다. 남원시는 그간 유충곤충사육 및 곤충기재자 지



남원시가 '2022년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곤충 사육 농민이 먹이를 주는 모습.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원사업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총 사업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라 거점 기관은 협력 농가에 곤충 종자 및 생산 장비 보급·관리, 먹이원 공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 협력 농가는 거점기관과 더불어 균일한 품질의 곤충을 생산, 관련 산업의 체계가 공고히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남원시의 곤충산업 유래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기회로 곤충산업의 생산시설 자동화 및 계열화 체계 구축 등 관련 산업을 육성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제주 저가항공 재취항 1년...성공적 안착

진에어와 제주항공 등 저가항공사(LCC)의 군산-제주 간 재취항 이후 1년간 탑승객이 19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와 군산공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군산-제주 간 노선에 1756편을 운항했으며, 이용객 수는 19만1429명(출발 9만6655명, 도착 9만4774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2만1134명(출발 11만655명, 도착 11만479명)의 86.5%까지 회복한 수

치이다. 특히 운항 편수는 1755편(출발 878편, 도착 877편)으로 지난 2019년도 1421편(출발 710편, 도착 711편)에 비해 24% 증가했다. 군산공항은 올 상반기에 4억5000만원을 투입해 탑승 수속시설 일체를 개선했다. 컨베이어벨트를 새롭게 설치해 신속한 수하물 운반으로 여객과 항공사 편의를 크게 향상시켰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